

만성간염, 간세포암에서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돌연변이(677C->T)발생빈도의 비교

포천중문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임상의학연구소*

정은미, 황성규, 오재인, 오성욱, 홍성표, 박필원, 오도연, 안규성, 한진희*, 김남근*

서론: MTHFR(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)는 5,10-methylenetetrahydrofolate를 methyltetrahydrofolate로 환원하며 이는 methionine합성에 사용되어지는 엽산(folate)의 일차적 순환형이다. MTHFR의 흔한 돌연변이 677C->T는 효소의 활성도가 감소하여 5-methyltetrahydrofolate 혈중농도 감소를 일으킨다. 엽산유도체가 대장암의 발생에 관여하며 MTHFR 677C->T 돌연변이가 대장암의 발생위험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만성간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. 따라서 저자들은 만성간염과 간세포암에서 MTHFR 돌연변이 발생빈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: 2001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문당차병원에 내원하여 만성간염(23명) 또는 간세포암(11명)으로 진단받은 34명과 대조군 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환자의 혈청에서 PCR/RFLP방법으로 MTHFR 돌연변이 발생빈도에 대해 알아보았다.

결과: Comparison of MTHFR (C677T) Gene Mutation Frequency between Chronic hepatitis,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control

	Chronic hepatitis (n=23)	Hepatocellular carcinoma (n=11)	Control (n=51)
MTHFR genotype			
677CC(%)	6 (26.0)	3 (27.2)	17(33.3)
677CT(%)	12 (52.1)	7 (63.6)	28(54.9)
677TT(%)	5 (21.7)	1 (9.0)	6(11.8)
T allele frequency	0.47	0.40	0.39

결론: 만성간염과 간세포암 환자에서 MTHFR gene 677C->T 돌연변이 발생 빈도가 정상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.

Mirizzi 증후군 양상의 총간관 협착의 진단에 있어서 유도선하 관강내 세경초음파검사술(Wire-guided Intraductal Ultrasonography)의 유용성

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소화기병센터·소화기연구소

문종호·유창범·천영국·김영석·조영덕·김진오·김연수·이문성·심찬섭·김부성

목적: 감돈된 담낭관 결석에 의한 외부 압박으로 이차적으로 발생한 총간관 협착은 Mirizzi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. 그러나 담낭관 결석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외부 압박으로도 Mirizzi 증후군의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 압박을 일으키는 원인을 수술전에 진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도 곤란하다. 관강내 세경초음파검사술(Intraductal ultrasonography; 이하 IDUS), 특히 유도선하 IDUS는 담도협착을 일으키는 병변을 관찰하기가 유용하다. 이에 연구자들은 외부압박으로 발생한 Mirizzi 증후군 양상의 총간관 협착의 수술전 진단에 있어서 경유두적 IDUS의 유용성을 전향적으로 알아보려고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. 방법: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상 외부 압박으로 발생한 총담관 협착으로 Mirizzi 양상의 총간관 협착을 보인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IDUS는 유도선하 관강내 세경초음파검사술이 가능한 세경 탐촉자 (Olympus 사제, UM-G20-29R)를 이용하였으며, 탐촉자의 직경은 2.0 mm이고 주파수는 20MHz 이었다. 성적: 1) 모든 대상에서 성공적으로 경유두적으로 IDUS를 시행하여 총간관의 협착부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. 2) 대상환자 16명중 14명(87.5%)에서 IDUS상 Mirizzi 증후군 양상의 총간관 협착의 원인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명은 IDUS의 낮은 투과성으로 원인을 관찰할 수 없었다. 3) 16명의 환자 중 9명은 담낭관이나 담낭경부에 감돈된 결석으로 진단되었으며 IDUS상 결석의 진단정확도는 100%이었다. 이중 1명은 담낭벽의 비대칭성 비후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 후 동반된 담낭관암으로 진단되었다. 4) 16명중 결석이 동반되지 않은 5명에서는 IDUS상 담관외 병변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중 4명은 악성종양과 관계가 있었다. 5) IDUS상 Mirizzi 증후군 1형으로 진단된 8명 중 3명에서는 복강경적 담낭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. 결론: 경유두적 유도선하 관강내 세경초음파검사술은 외부압박으로 발생한 Mirizzi 증후군 양상의 총간관 협착의 수술전 진단에 있어 유용하였다.